

SK에너지, 술 안마시기 캠페인 확대

SK에너지 울산 컴플렉스가 2008년을 절주(節酒) 원년으로 정하고 <술 없는 날>, <실천 112>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SK에너지는 5월2일 울산 사업장에서 직원들이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단합을 꾀하는 대신 자기계발에 힘쓰고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4월부터 대대적인 절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절주 프로그램으로는 매달 첫 금요일은 회식이 없는 날로 하는 <술 없는 날, 술을 마실 때는 한 가지 술만 마시고 술자리는 1차에서 끝내며 회식은 2시간 이내 마무리한다는 뜻의 <실천 112>, 원샷, 잔돌리기, 강권, 폭탄주, 2차 금지를 의미하는 <5-NO> 등이 있다.

또 사업장 곳곳에 포스터 등을 게시하고 매일 절주와 건강 정보를 담은 편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팀장들이 술선수범에서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앞으로도 외부 전문가 초청 강연과 교육, 우수 사례 포상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

SK에너지 관계자는 “술 덜마시기 운동이 의무조항은 아니고 하루 아침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리한 술자리를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회식을 하다 분위기에 편승해 2차, 3차를 가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줄고 있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5/02>